

제61회 그라미 어워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1회 그라미어워즈 '베스트 R&B 앨범' 부문을 시상하러 무대에 올랐다.

시상자로 나선 BTS “다시 올 것”

베스트 R&B 앨범 부문

수상자는 미 싱어송라이터 'H.E.R'
K팝 가수 최초로 레드카펫 밟아
멤버들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고 행복”

그들 '방탄소년단' (BTS)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라미 어워즈' 시상자로 나섰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1회 그라미어워즈 '베스트 R&B 앨범' 부문을 시상하러 무대에 올랐다.
리더 RM(25)은 수상자 호명 전 “한국에서 자라오면서 그라미 어워즈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꿔 왔었다. 이 꿈을 이루게 해준 우리 팬들에게 감사하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출현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했다.
베스트 R&B 앨범 부문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허(22·H.E.R.)가 가져갔다. RM은 허의 이름을 부른 뒤 “축하한다”며 박수를 유도했다.
방탄소년단은 본 시상식에 앞서 K팝 가수 최초로 그라미 어워즈에서 레드카펫도 밟았다.

일곱 멤버들은 턱시도를 단정하게 차려 입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레드카펫 MC들을 상대했다.
RM은 “놀랍다. 그라미어워즈에 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꿈을 이뤘다”면서 “많은 유명 뮤지션들을 볼 수 있어 흥분된다”고 말했다. MC들이 새 앨범 일정을 묻자 “꿈”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협업, 솔로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작업 중”이라고 귀띔했다.
곧 다가올 생일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제이홉(25)은 “제이홉, 생일 축하한다. 아이 러브 제이홉”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한류의 선봉장으로 통하는 방탄소년단은 이날 레드카펫에서도 한국 문화와 산업을 잘 보여줬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레드카펫 현장에서 현대자동차 ‘캘리세이’를 타고 나타났다. 자신들이 광고모델이 차량이다. 턱시도는 해외 명품이 아닌, 한국 디자이너들의 옷이다. 제이홉은 김서홍 음프, 나머지 여섯 멤버들은 제이백 쿠티어를 입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시상식을 마친 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에서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오늘 그 꿈을 이뤘다”며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하게 돼 무척 영광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다.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준 아미(팬클럽)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세계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봐 준 많은 분들과 시상식에 초대해 준 그라미 어워즈에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라미어워즈는 미국레코딩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은 재작년과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작년 아메리칸 뮤직어워즈에서 인기 소셜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그라미어워즈는 미국 CBS가 생중계 중이다. 국내에서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이 방송하고 있다. 팝M 배철수,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동시통역사 겸 팝 전문MC 태인영이 해설을 맡았다.
한편, 이번 그라미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 앨범 패키지를 디자인한 허스키 폭스가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합박, 아시아 가수들에게 인색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들었던 그라미어워즈가 철용성을 깨나가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여성 희망의 장’ 탈바꿈

작년 ‘미투’ 연대의 뜻 결연
올해에는 레이디가가 등
여성 연예인들이 음악을 통해
삶의 변화·권리 보호 등 전달

그라미 어워즈가 ‘여성 연대’라는 결기의 장에서 여성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1회 그라미 어워즈’ 오프닝에서 버락 오바마(58)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55)가 MC인 미국 R&B 가수 엘리샤 키스(38)와 팔짱을 끼고 등장할 때부터 변화는 감지됐다.
오바마는 “모타운을 비롯한 모든 음악 덕분에 내가 하고 싶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운을 폈다. 모타운은 196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히트곡을 쏟아낸 미국의 술 전문 레이블이다. 마이클 잭슨(1958~2009), 스티비 원더(69)의 고향으로 통한다.
오바마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던 음악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음악은 존엄과 비애, 희망과 기쁨이다. 모든 목소리, 모든 이야

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관객들은 오바마를 향해 큰 환호와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지난해 그라미어워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MeToo) 운동에 연대의 뜻으로 결연했고, 눈물바다를 이뤘다.
당시 레드카펫에서 상당수 여성 가수들은 반 성폭력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왔다. 미국 사회에서 성추행과 성폭력, 성차별을 없애려고 결성한 단체 ‘타임스 업’을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전 프로듀서인 닥터 루크로부터 성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그녀를 고소, 소송에 휘말리며 음악활동을 잠시 멈췄던 케사가 자신의 곡 ‘프레이밍(Praying)’을 신디 로퍼, 카밀라 카베요, 줄리아 마이클스, 안드라 데이, 비비 렉사 등과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린 무대도 뜻깊었다.
하지만 올해 그라미어워즈에서는 오바마뿐 아니라 그녀와 팔짱을 하고 나온 가수 레이디가가, 배우 제이디 핀켓 스미스, 가수 겸 배우 제니퍼 로페즈 등 여성 연예인들이 음악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고, 여성 권리를 보호해줬는지를 전했다.
독특한 의상과 음악으로 자주 가십의 대상이 된 가가는 “사람들은 내 외모,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내가 만든 음악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음악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음악의 힘을 믿은 덕에 여러 번 앞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로페즈는 “장소가 어디든 음악을 통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 스미스는 “음악은 우리가 열정을 표현하게끔 한다. 모든 음악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드레이크, 불참예상 깨고 그라미 직접 수상... ‘베스트 랩송’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33)가 예상을 깨고 ‘그라미 어워즈’에 참석, 트로피를 안았다.
드레이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1회 그라미어워즈에서 ‘갓스 플랜(God’s Plan)’으로 ‘베스트 랩 송’을 차지했다.
드레이크는 “처음으로 그라미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사실 오늘 수

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라미어워즈는 권위를 인정 받지만 드레이크 같은 흑인 가수, 합합 뮤지션을 박하게 대우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번에도 백인 중심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드레이크는 이를 의식한 듯 앞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드레이크는 “우리는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을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공연장에 와준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